

PEOPLE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이상의 함평군수

호국보훈의 달 맞이 위문 방문

함평군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보훈대상

자 유족 2가구를 방문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4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상의 군수가 최근 함평읍과 엄다면에 거주하는 92세와 91세의 보훈대상자 가정 2곳을 방문해 국기와 지역사회가 보훈대상자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상의 군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해야 한다”며 “일상에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의 군수는 보훈대상자 위문을 마친 후 엄다면 삼정경로당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 현장을 찾아 여름철 폭염에 지친 주민들 격려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한전KDN, 올해 1차 ESG위원회

ESG경영 전략 고도화 등 논의

한전KDN은 최근 나주 본사에서 ‘2025년 제1차 ESG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전KDN이 운영하는 ESG위원회는 체계적인 ESG경영 전략 마련 및 이행을 목적으로 구성된 추진 기구로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ESG전략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다. 위원회는 ESG경영 주요 추진방향과 ESG경영전략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중간보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핵심 과제의 실효성과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위원회에 참석한 사외이사들은 “에너지ICT 기반의 ESG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데이터 거버넌스를 강화함으로써 회사가 ESG 리더 그룹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송흥 기자



농협 전남본부

서진도농협서 영농기술교육

농협 전남본부는 지난 23일 서진도농협에서 대파 재배농가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선도농업인 영농기술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성공적인 영농활동으로 지역에서 우수한 재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새농민회원들 강사로 초빙해 진행했다. 서진도농협을 시작으로 구례, 고흥, 담양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총 5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지역에서 최신 재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새농민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동료 및 후배 농업인들을 위해 자신들의 노하우가 가득한 영농기술교육을 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 한해 재배부터 품질관리까지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영농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송흥 기자 photo25@

SK텔레콤 직원들, 급여 끝전 모아 장애인단체에 기부

‘어둠속의 빛 사회적협동조합’에 500만원 전달

장애인 생산품 구매 등 활용…나눔 실천 ‘귀감’

SK텔레콤 직원들이 ‘급여 끝전 모으기’ 행사로 모아진 기금 중 500만원을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어둠 속의 빛 사회적협동조합’에 전달했다.

전환희 SK노조위원장은 “직원들 급여의 작은 끝전이라도 모두가 참여하니 큰 기금이 되어 장애인들에게 큰 역할이 되고 있다”며 끝전 모으기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후원을 받은 시각장애인 김갑주 조합이사는 “SK텔레콤 직원들의 작은 나눔이 장애인 일자리 만드는 사업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이 기금으로 장애인 생산품 구매와 장애인 연주단의 연주로 지역사회에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기금 활용 방안을 밝혔다.

김갑주 조합이사는 SK텔레콤 직원들의 기부에 대한 답례로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한 새책 인삼주를 전달하는 훈훈한 정을 나누는 자리였다.

김 이사장은 “SK텔레콤 사제처럼 모두가 나눔에 동참하여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직원들의 ‘급여 끝전 모으기 운동’은 임직원들이 급여의 끝자리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캠페인으로, 틈새를 살피며 도움을 찾던 직원들이 시작한 행사로, 회사도 동참하게 되면서 전사적인 행사로 발전해 모범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SK텔레콤 직원들이 ‘급여 끝전 모으기’ 행사로 모아진 기금 500만원을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어둠 속의 빛 사회적협동조합’에 전달했다.

‘급여 끝전 모으기’로 모아진 금액은 사회적

애인의 자립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이번 기부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지난 23일 전남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 체육선수의 고용 확대와 체육활동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전남장애인체육회 업무협약 체결

전남도 출연기관 최초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기반 마련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지난 23일 전남체육회에

서 전남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 체육선수의 고용 확대와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체육선수에게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체육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장애인 고용률 제고와 ESG경영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차원에서 추진됐다.

특히 전남도 산하 출연기관 중 최초로 장애인 체육선수 채용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협약 후 신속한 채용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황규철 녹색에너지연구원장과 박정현 전남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비롯해 양 기

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녹에너지는 향후 장애인 체육선수들에게 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물론,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지역사업에도 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 갈 방침이다.

황규철 원장은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일과 운동을 병행하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기자 hoibul@gwangnam.co.kr

광주자원봉사센터, 세계양궁대회 성공기원 캠페인

광주자원봉사센터는 24일 서구 상무역사거리 일원에서 ‘광주 2025 현대세계 (장애인) 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대자보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9월 열리는 세계 (장애인) 양궁선수권대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범시민 홍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빛고를사랑봉사단 소속 자원봉사자 40여명이 참여, 시민들과 소통에 나섰다.

자원봉사자들은 시민들에게 세계 (장애인) 양궁선수권대회의 의미와 일정, ‘평화의 올림, 친절한 광주’라는 도시 비전을 설명하며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또 세계 (장애인) 양궁선수권대회에서 경기장을



원과 선수단 환영·환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서포터즈 모임을 안내하고 대자보 이용도 독려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의 날’과 연계한 녹색교통 문화 실천 활동도 함께 펼쳤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서구는 최근 조용한 나눔을 실천해 온 송순희 주택관리사의 ‘서구아너스’ 가입식을 개최했다.

광주 송순희씨 “사회의 은혜, 이제 돌려줄 때”

후원자 모임 ‘서구아너스’ 가입

기초생활수급자 시절 못 잊어

10년 넘게 ‘소중한 한 끼’ 나눔

광주 서구에 특별한 기부자가 나타나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서구는 최근 삶의 고비마다 받은 은혜를 되새기며 조용한 나눔을 실천해 온 한 주택관리사의 ‘서구아너스’ 가입식을 개최했다.

그 주인공은 송순희씨 (56·여).

송씨는 지난 2019년까지 장애와 가난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며, 수돗물 한 방울도 아껴 쓰고 한 끼 식사로 하루를 버티며 꿈을 실현하기 위한 힘겨운 시간을 견뎠다.

다음 해인 2020년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자립에 성공한 송씨는 몸이 불편해 누워만 있던 뇌병변 장애인을 보며 ‘내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품었다.

과거 힘든 시기에 한 복지공무원이 선물한 작은

LED전등 하나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후 그는 자신이 살던 동네 인근 복지관과 행정복지센터에 해마다 컵라면 300박스, 계란 200판, 현금 수백만원을 10년 넘게 기부해오며 ‘소중한 한 끼’를 나누는 삶을 실천했다.

송씨는 “복지공무원이 준 전등이 제 인생의 빛이 됐다. 그의 따뜻한 사랑이 지금의 나를 만든 힘이 됐다”며 “지금까지 참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제는 내가 돌려줄 때”고 말했다.

김갑주 서구청장은 “송순희씨의 나눔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사람을 향한 진심과 회복의 이야기다”며 “절망에서 희망으로, 다시 나눔으로 이어지는 ‘마음부자’의 발걸음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릴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서구아너스는 3000만원 이상을 기부한 고액 후원자 모임으로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해 만든 기부 공동체다. 지금까지 83명의 회원이 총 29억원 이상을 기부하며 ‘복지사각지대 제로(0), 12달이 행복한 착한도시 서구’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년도전지원사업 연계

광주금융사회복지협회와 협약

광주시·5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사단법인광주금융사회복지협회는 지난 23일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 발굴·모집과 기관 연계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시와 동·서·남·북·광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사)광주금융사회복지협회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센터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구직 어려움을 해소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진입을 앞당기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협약체를 바탕으로 수료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수료기간에 따른 1·3·5 교통비 지원, 맞춤형 금융경제교육, 참여수당 저축시 달성 축하금 지급, 연계성과 인센티브 지급, 이수 인센티브, 취업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지속적 사후관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동구, 주민자치회 동구협의회 월례회의 광주시 동구(구청장 임택)는 24일 주민자치회 동구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자치회 발전을 위한 자유 토의, 자치회 조례개정 등 현안 사업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